

젊은 소비층 줄어 부동산 침체·산업 경쟁력 추락

인구절벽 '지방소멸' 성장동력이 꺼져간다

<3>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인구절벽 현상이 불러온 어두운 현실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경제부문이다. 노령층이 늘고 30대에서 50대의 주요 소비층이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은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살 사람이 없어진다. 보통 첫 집을 마련하는 가구주의 나이는 41살인데 나이 대 인구가 많으면 수요가 늘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침체를 겪는다.

◇2018년 이후 집값 사람 감소...주택

1인 가구 급증...상반기 광주·전남 분양 아파트 95% 소형 생산동력 떨어지고 복지 수요 급증...지역경제 장기불황 요인

공급도 중·소형으로=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국도 머지않아 인구절벽을 겪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잃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 전망도 비슷하다. 통계청은 45~49세 인구가 2018년 436만 2000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듬해부터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 바람은 잔잔해지고 있으며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된지 오래다. 이미 고령화와 소가족화에 따라 1~2인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주택

공급유형도 중·소형으로 바뀌었다. 올해 광주·전남 지역에 상반기에 분양된 아파트 95% 이상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였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베이비부머는 집 팔고 젊은 세대는 집을 살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의 부흥기를 이끈 베이비부머 세대 일부는 은퇴를 앞두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다. 은퇴 후 지출을 충당할 재원이 충분치 않아서다. 반면 집을 사려는 젊은 세대는 점점 줄고 있다. 게다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집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2030 건설시장 미래전망 보고서'에서 "현재 신규 주택수요는 연간 약 40만 호이지만 2030년까지 연 평균 7000~8000호씩 꾸준히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인구 감소에 복지수요 늘고 산업 경쟁력 추락=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 사회지표로 본 광주·전남지역의 변화상'에서는 인구절벽이 가져올 문제들에 대한 우려할만한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지난해 111만2000명(73.3%), 113만5000명(64.6%)에서 오는 2040년께 각

각 83만명(58.1%), 84만8000명(49.1%)으로 폭 떨어진다. 생산가능 인구가 편입될 유소년 인구(10~14세) 또한 광주는 23만 6000명(15.6%)에서 18만6000명(13.0%)으로, 전남은 23만5000명(13.4%)에서 16만8000명(9.7%)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1인가구도 광주 15만4000가구(27.5%)에서 2035년 22만6000가구(36.4%), 전남은 23만3000가구(32.6%)에서 35만5000가구(42.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인구절벽 여파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급감은 생산동력을 잃고 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추락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당연히 사회 역동성 저하도 불가피하다. 특히나

초고령화와 저출산 후폭풍의 복판에 있는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생산가능 인구 급감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또 다른 먹구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

문경년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 분포가 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성장동력 또한 꺼져갈 수밖에 없다"며 "심화하는 저출산 기조를 멈추게 할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대구 군공항 이전은 명백한 새치기"

군공항 이전 반발 확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대구공항 통합 이전)만 추진하자 역시 오래전부터 군공항 이전을 요구해 온 광주와 수원의 아군이 '형평성'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 광주·수원·대구 3개 군공항 이전을 한꺼번에 추진하기 쉽지 않아, 대구 군공항 이전으로 광주와 수원의 군공항 이전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반발은 더욱 확산할 조짐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추진에 대해 "명백한 새치기이자 위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가 최종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 국방부가 이를 검토해서 후보지를 발표하게 돼 있는데,

아권 "대통령 말 한마디에... 광주·수원 제쳐" 형평성 제기

대구군공항 이전은 국방부 검토도 없이 이전이 확정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은 대구만의 대통령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령이다. 대구만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수원·광주도 보살피야 한다"며 "인사차별에 이어 공항 이전에서도 차별을 받아야 하는 광주는 슬프다"고 한탄했다.

이 회의에서 권은희 의원이 "지난 2013년 제정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수원의 경우 작년 6월 이전당장성 적정판정을 받아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에 착수했고, 대구와 광주는 지난 6월29일 공동으로 평가준비위원회를 개최, 다음달 8월까지 이전건서서에 대한 최종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군공항 이전사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뒤집

어질 수 있는 시대에 역행적인 관치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듯 대통령이 나서서 특정지역만을 위해 진행되는 것은 또 다른 지역 간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고 지역 간 형평성에 맞지도 않다"며 "이제라도 대구군공항 이전 TF가 아닌 군공항 이전TF를 구성하거나 군공항 이전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예결위 결산 종합 질의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은 대구·수원·광주를 동일 관점에서, 형평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구만 특정해서 군공항 이전을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며 "도심 군공항의 외곽 이전은 (광주·수원·대구) 세 도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법과 동일한 잣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출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구군공항 통합이전 TF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군공항 이전 수원·광주·대구 지역차별 없이 추진하라"

수원시민협의회 성명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 지연에 대한 수원시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공동회장 장성근)는 14일 오전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방부는 지역 차별 없이 법에 따라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국방부가 2015년 6월 수원 군공항 이전 타당성을 승인한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해야 함에도 1년이 넘도록 뚜렷한 이유 없이 검토 중이라는 공백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60여년 간 소음피해를 겪은 수원 시민으로서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대구 민항과 군공항(K2) 통합이전 계획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수원, 광주, 대구는 군공항으로 인해 많은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 국방부는 3개 시의 군공항 이전사업

을 법에 따라 동일한 잣대와 원칙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민협의회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행할 것과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를 오는 9월까지 발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장성근 공동회장은 "앞으로 국회와 국방부를 찾아가 조속한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석준 실장 "대구군공항 이전 신속하게 추진"

정부 태스크포스 1차 회의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4일 대구군공항 통합이전과 관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정부종합청사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군공항 통합이전 태스크포스(TF) 제1차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 공항기능을 감안한 사업방식과 사업일정을 조기에 확정해 사업 추진의 지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통합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이전건서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 있고, 지자체들의 관심도 크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통합적으로 병행 추진,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포함한 지자체들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대구군공항 통합이전이 공군의 전력 유지에 기여하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건전 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가격 공개!"

8년전 가격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음 식 비	밥	60인분	60,000	고사리나물	3k	45,000	동대+애호박전	4k	96,000
	육계장	60인분	114,000	표고버섯나물	3k	54,000	초고추장(직접만들)	1병	15,000
	쇠고기무국	60인분	114,000	파고추말치조림	3k	78,000	양념새우젓(국산)	1k	15,000
	북어무채국	60인분	108,000	명태코다리조림	4k	88,000	인절미	6k(3되)	54,000
	된장국(국산검은콩)	60인분	96,000	오이도라지무침	4k	84,000	기피인절미	6k(3되)	57,000
	배추김치(국산)	5k	57,500	홍어회무침	4k	104,000	꿀떡/절편	6k(3되)	45,000
	도라지나물	3k	45,000	홍어사시미	4k	120,000			
	새송이나물	3k	54,000	돼지삼겹(수입)깃가	5k	105,000			
	취나물(계절)	3k	54,000	돼지삼겹(국내)깃가	5k	190,000			

정직한 대명령입니다

맛과 품질과 중량을 반드시 비교해 주십시오

- 전 빈소 전자저울 비치로 음식 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품 판매 즉시 전산전표 발행으로 실시간 장례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그린장례식장

www.greenfuneral.co.kr

Tel. 062) 250-4455

광주광역시 동문대로 255 (문흥동 876-17)

그린은,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며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고귀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그린에서 상을 치루시면, 전국 어디서나 문상객이 찾아오기 편리하며, 쾌적한 접객실, 맛있는 음식, 품격있는 행사와 의전으로 고인에 대한 예와 품격을 높이고, **장례비용은 대폭 절감하여 상주님께 큰 이익이 됩니다.**

그린장례문화원 250-4455